

학 익 진

방미경

번뜩이는 물살에
잇닿은 하늘이 붉어진다

온몸으로 떨리며 요동치는 임진년의 달빛에
쟁쟁거리는 칼의 울음소리
선 목젓과 탄식으로
허기진 울음을 베어 삼켰을까

울혈로 솟아난 숨결
밤새 뜬눈으로 반나절 어지러운 싹을
베어내기 위해 고심한 것일까
웅크린 핑계로 살아가는 타협보다
죽어야 오래 살아나는, 시리고도 긴 행간의 삶
제 수위를 조절하며
말없이 거룩하지 않았던가

혈거운 칼집을 움켜쥔 채
그을리는 미간 사이로 얼비치는 조선의 바다와 하늘에
지난 깃발을 쫓아가는 백의의
주름 마디마디엔 굴하지 않는, 적요를 삼키며
날숨을 삼켰던 충심忠心の 시간

한 뒷박의 여명처럼
별경계 뉘인 수평선을 일으켜 세우고
단숨에 바다 한가운데
지피는 저 불덩어리는
혈염산하의 심장을 꺼내들어
허술한 구간을 흥건한 기세로
낭자하게 번졌던 학익진鶴翼陣

선연한 일취소탕으로
시퍼런 바다의 문장을 휘두른다